

LG화학, 구미 양극재 공장 지분구조 개편

토요타통상 2대 주주 유차… IRA·공급망 규제 리스크 최소화

토요타통상, 공장 지분 25% 매입
美中 갈등, 韓日 협력 대응체제 구축
“배터리 소재 시장 리더십 공고히”

LG화학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규제 대응과 글로벌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일본 토요타통상을 경북 구미 양극재 공장의 2대 주주로 유치했다고 9일 밝혔다.

토요타그룹의 종합상사인 토요타통상은 구미 양극재 공장(LG-HY BCM)의 지분 25%를 매입했다. 이번 거래로 구미 공장의 지분 구조는 LG화학 51%, 토요타통상 25%, 화유코발트 24%로 변경됐다. 토요타통상은 중국 화유코발트가 보유한 지분 49% 중 25%를 인수해 2대 주



LG화학 구미 양극재 공장 LG-HY BCM 전경.

/LG화학

주로 올라섰다.

화유코발트는 중국내 1위 코발트 생산 업체로 배터리 핵심 광물 조달과 정제 능력을 앞세워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전 세계 배터리 원재료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LG화학은 화유코발트와 협력했다. 그러나 미국 IRA는 배터리 및 핵심 광물 공급망과 관련해 중국 기업이 지분을 25% 이상 보유하거나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할 경우 '제한 대상 외국 기업(FEOC)'으로 지정해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한다.

LG화학은 이에 대응해 지분 구조를 조정,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이 같은 IRA 규제 대응과 함께 글로벌 고객사 다변화 필요성도 작용했다. LG화학은 현재 양극재 매출의 상당 부분이 LG에너지솔루션을 통해 발생하고 있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글로벌 완성차로 공급처를 넓히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토요타통상은 앞으로 구미 공장에서 생산되는 양극재를 북미 지역 배터리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LG화학 구미 양극재 공장은 연간 6만6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 전구체를 거치지 않고 맞춤 설계된 메탈을 직접 소성

하는 '전구체 신공정 양극재(LGPF)'를 적용해 제품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토요타통상의 지분 참여는 LG화학이 IRA 규제에 대응하면서 글로벌 양극재 공급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G화학은 청주·구미 공장, 2026년 하반기 가동 예정인 미국 테네시 공장, 중국 우시 공장 등 글로벌 생산 거점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고객을 확대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LG전자 “자동차, ‘바퀴달린 생활공간’ 혁신”

IAA 모빌리티 2025

‘차량 내 경험의 재정의’ 콘퍼런스
“2030년까지 2000만대 ACP 공급”

LG전자가 차량용 웹OS를 비롯한 차별화된 솔루션과 파트너십을 앞세워 모빌리티 공간을 소프트웨어 기반의 경험 중심 공간으로 바꾸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시대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8~1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국제 모터쇼 ‘IAA 모빌리티 2025’에서 ‘차량 내 경험의 재정의: 왜 콘텐츠 생태계가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LG전자 은석현 VS(자동차부품)사업 본부장은 “LG전자는 헤드유닛, 디스플레이, 커넥티비티 등을 아우르는 전장 부품 포트폴리오와 약 70년 동안 가전 및 IT 분야에서 쌓아온 고객경험 노하우를 기반으로 SDV 시대를 선도하는 독보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차량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사용자 경험 중심의



LG전자 은석현 VS사업본부장이 국제 모터쇼 ‘IAA 모빌리티 2025’서 ‘차량 내 경험의 재정의’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다.

/LG전자

‘바퀴 달린 생활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은 본부장은 “전 세계 2억 4000만대 이상의 스마트 TV에 적용된 웹OS를 기반으로 한 차량용 독자 플랫폼으로, 집에서 즐기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차량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LG전자는 다양한 콘텐츠 업체들과 협업을 지속 강화해 풍부하고 확

장가능한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누적 2000만대에 차량용 웹OS 콘텐츠 플랫폼(ACP)을 공급하며 SDV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SDV 시대 웹OS만의 차별적인 강점인 풍부한 콘텐츠와 지속 확장 가능한 서비스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 두 곳을 최초로 공개했다.

첫 번째 파트너는 차량 내 게임 경험을 거실에서 즐기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엑스박스’다. LG전자는 차량용 웹OS 플랫폼에 ‘엑스박스 게임 패스’ 서비스를 추가한다. ‘엑스박스 게임패스 얼티밋’ 구독 고객은 내 차 안에서 ‘둠: 더 다크 에디션’, ‘포르자 호라이즌 5’ 등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최신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두 번째는 자동차 실내를 업무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썸’과의 파트너십이다. 글로벌 탭디어 화상회의 솔루션 썸은 LG전자의 차량용 웹OS 플랫폼에 네이티브 앱 형태로 추가해 이동 중에도 차량 내에서 화상 회의를 진행하며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화, 유럽 맞춤형 방산 포트폴리오 선보

DSEI 통합 부스 마련… 천무 등 소개

한화가 유럽 ‘방산 블록화’를 적극 공략하기 위한 맞춤형 방산 포트폴리오를 선보인다.

한화는 런던 엑셀(ExCeL)에서 열리는 ‘DSEI 2025’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전시회는 유럽의 대표 방산전시회 중 하나로 올해는 90여 개국 약 1600개 업체가 참가했다. 한화 방산3사는 이번 전시회에 210㎡ 규모의 통합부스를 마련했다.

한화는 이번 전시에서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모듈화 추진 장약(MCS) 등 유럽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무기 체계를 선보인다.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노르웨이, 튀르키예 등 NATO 회원국 6개국에서 운용 중인 K9은 신뢰성과 상호운용성이 입증된 체계임을



글로벌 방산 전시회 ‘DSEI 2025’ 한화 전시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강조한다.

러·우전장에서 장거리 정밀 타격능력의 필요성이 다시 확인된 상황에서 천무는 유럽의 화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필수 솔루션으로 제시한다. MCS는 사거리 확장과 화력 효율화는 물론, NATO 표준에 부합하는 장약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 연합군 운용 환경에서도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이승용 기자 lsy2665@

HD현대, ‘지속가능 가스선’ 미래 제시

가스텍서 친환경·AI 기술 소개

HD현대가 세계 최대 가스 전시회인 가스텍에서 친환경·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지속가능한 가스선의 미래를 선보인다. HD현대는 오는 1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가스텍 2025’에 참가한다고 9일 밝혔다.

정기선 HD현대수석부회장과 영업·연구개발·엔지니어링 분야 임직원들이 참석해 주요 선사 및 선급과 자사의 친환경 기술을 소개하고 조선·해운산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HD현대는 전시기간 글로벌 선급으로부터 기술인증을 받고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HD현대는 노르웨이선급(DNV)등으로부터 ▲선수(船首)거주구 ▲풍력보조추진장치 등을 적용한 미래형 가스선에 대한 기본인증을 받는다. 이 선행은 선원 거주

공간을 배의 앞쪽에 배치함으로써 상갑판에 추가 공간을 확보하고 풍력보조추진장치를 다수 배치해 연료 효율을 높였다.

연료 사용을 줄여주는 AI 기반의 솔루션에 대한 인증도 받는다. HD현대는 미국선급(ABS)으로부터 선원의 개입 없이도 장비를 자율적으로 최적 운영하는 솔루션에 대해 기본인증을, 운항 중 중발가스 최적 사용량을 제시하는 솔루션에 대해서는 제품 설계 평가를 받는다.

선박 내 화재 사고 대응을 돕는 AI 솔루션의 실증을 위한 협력에도 나선다. 통합안전관제솔루션의 영상 화재 감지 기능을 선박의 기존 화재감지시스템과 연동 및 실증하고자 스웨덴 컨실리움사와 MOU를 체결한다.

HD현대는 또 액화석유가스(LPG)운반선을 암모니아 이중연료로 개조하는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로이드선급(LR)과 MOU를 체결한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삼성SDI, ‘SBB 1.7·SBB 2.0’ 첫 공개

RE+ 참가… 차세대 배터리 라인업 선보

삼성SDI가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북미 최대 에너지 산업 전시회 ‘RE+(Renewable Energy Plus) 2025’에 참가해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 최적화된 차세대 배터리 제품 라인업을 공개했다.

삼성SDI는 이번 전시에서 ▲삼성 배터리 박스(SBB) ▲무정전전원장치(UPS) ▲각형 ▲USA 프로덕션(Production) ▲어워드(Award) 등 5개 전시 존(zone)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SBB 존’에서는 차세대 제품인 ‘SBB 1.7’과 ‘SBB 2.0’을 최초로 선보였다. SBB는 20피트(ft) 크기 컨테이너에 배터리와 안전장치 등

을 통합한 전력용 ESS 솔루션이다. 삼성SDI는 독자 개발한 함침식 소화 기술(E DI), 인공지능(AI) 기반 사전 고장 진단 및 수명 예측 알고리즘을 적용해 업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장수명을 확보했다.

‘SBB 1.7’은 삼원계 NCA 배터리를 탑재해 기존 ‘SBB 1.5’와 동일한 컨테이너 사이즈에서 용량을 6.14MWh로 약 17% 확대했다. ‘SBB 2.0’은 삼성SDI가 처음으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적용한 제품으로, 고유의 각형 폼팩터와 극한 기술을 통해 낮은 에너지밀도라는 기존 LFP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을 강화했다. 두 제품 모두 내년부터 미국 현지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전시회 부스 중앙에는 UPS용 고효율

배터리 ‘U8A1’도 전시됐다. ‘U8A1’은 지난 5월 독일 ‘다스마터 E 유럽 2025’에서 혁신상을 받은 제품으로, 고효율·고에너지밀도를 구현해 기존 대비 공간 효율을 33% 개선했다. 데이터센터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도 적은 수의 배터리로 안정적 대응이 가능하다.

각형 존에서는 삼성SDI의 차별화된 각형 배터리 기술력이 소개됐다. 알루미늄 캔 타입의 구조적 특성으로 내구성과 열전도성이 뛰어나고, 벤트·퓨즈 등 안전 설계 기술이 적용됐다. 또한 화재 시 열 확산을 막는 ‘No TP(No Thermal Propagation)’ 기술을 도입해 셀 간 열 전파를 차단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축적된 배터리 노하우와 현지 생산 역량을 통해 글로벌 ESS 시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